|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컨텍트에서 다시 언텍트로

미 보건 당국 "코로나 발병 어려운 시기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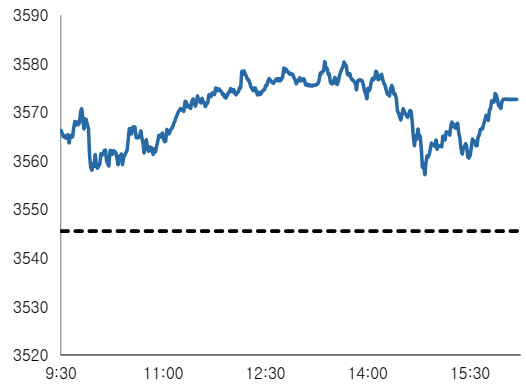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백신 낙관주의 경고

미 증시는 최근 급격히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이 크게 상승. 다만,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레저, 산업재, 상업용 부동산, 소비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과 질병통제 예방센터(CDC)의 발표,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도 일명 컨텍트 관련주의 약세를 부추김(다우 -0.08%, 나스닥 +2.01%, S&P500 +0.77%, 러셀 2000 -0.01%)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근 언텍트 관련주가 급락하고 컨텍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임. 그러나 오늘은 반대의 움직임을 보임. 이는 반발 매수세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해도 생산, 유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영향.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 일 하루 평균 11 만 9,171 명이 발생. 전체로는 1 천만 명을 상회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언텍트 관련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을 부추김. 더불어 많은 공중 보건 당국자들은 미국이 아직 발병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지 못했다고 경고했고, 앞으로 3~4 개월에 걸쳐 올 것이라고 언급 한 점도 영향

한편, 라가르드 ECB 총재는 "백신에 대한 최신 뉴스가 고무적이지만, 바이러스 확산은 너무 가속화 되고 있어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낙관주의'에 대한 경고. 물론 은행의 대출 비용을 추가로 절감하고 대 유행 관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정 할 것을 시사해 지수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 백신 개발 후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를 약화. 여기에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CDC)는 매일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4 주 동안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백악관에 코로나 예측을 제공하는 IHME 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하루 2 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코로나 확산은 지속. 특히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연말에는 많지 않아 사망자 추이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백신 낙관주의'에 대한 기대를 약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85.87	+1.35	홍콩항셍	26,226.98	-0.28
KOSDAQ	839.90	-0.11	영국	6,382.10	+1.35
DOW	29,397.63	-0.08	독일	13,216.18	+0.40
NASDAQ	11,786.43	+2.01	프랑스	5,445.21	+0.48
S&P 500	3,572.66	+0.77	스페인	7,793.70	+1.07
상하이종합	3,342.20	-0.53	그리스	658.42	+1.02
일본	25,349.60	+1.78	이탈리아	20,993.02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반도체, 소프트웨어, 5G 종목 강세

아마존(+3.37%)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및 코로나 급증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더 나아가 알리바바(-0.33%)의 광군절 매출이 지난해보다 급증하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이베이(+2.51%), 월마트(+1.66%), 등 온라인 판매 증가 기대가 높아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MS(+2.63%), 애플(+3.04%) 등 대형주, 어도비(+3.54%) 세일즈포스(+2.63%)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 NVIDIA(+5.07%), 페이팔(+4.90%), 넷플릭스(+2.19%), 줌비디오(+9.93%) 등과 진단업체인 에봇(+1.66%)도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상승했다. 퀄컴(+5.41%)은 5G 네트웍 구축 위해 디시네트웍(+5.09%)과 파트너쉽을 맺었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쿼보(+5.20%), 스카이웍(+4.83%), 브로드컴(+3.52%) 등 애플 부품주는 아이폰12 판매에 기대 강세를 보였다.

반면, TJX(-3.44%), 로스스토어(-4.79%) 등 소매유통업종, 부킹닷컴(-0.37%), 디즈니(-3.02%), 카니발(-3.11%), 윈 리조트(-5.12%) 등 여행, 레저, 리조트 업종, 보잉(-3.47%), 델타항공(-5.45%) 등 항공주, GM(-1.27%) 자동차업종은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급증 여파로 하락했다. 화이자(-0.47%)는 대주주가 백신 임상 결과 전후 주식 일부를 매각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일라이릴리(-1.23%), 길리어드 사이언스(-0.86%) 등 여타 제약업종도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4%	대형 가치주 ETF(IVE)	-0.31%
에너지섹터 ETF(OIH)	-1.94%	중형 가치주 ETF(IWS)	-0.43%
소매업체 ETF(XRT)	+0.05%	소형 가치주 ETF(IWN)	-1.25%
금융섹터 ETF(XLF)	-0.41%	대형 성장주 ETF(VUG)	+1.88%
기술섹터 ETF(XLK)	+2.37%	중형 성장주 ETF(IWP)	+2.0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8%	소형 성장주 ETF(IWO)	+1.18%
인터넷업체 ETF(FDN)	+2.82%	배당주 ETF(DVY)	-0.84%
리츠업체 ETF(XLRE)	+0.76%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8%
주택건설업체 ETF(XHB)	+1.5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3%
바이오섹터 ETF(IBB)	+1.29%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13%	하이일드 ETF(JNK)	-0.15%
곡물 ETF(DBA)	-0.20%	물가연동채 ETF(TIP)	+0.18%
반도체 ETF(SMH)	+3.52%	Long/short ETF(BTAL)	+3.0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3.82	-0.84%	+13.59%	+9.66%
소재	435.67	-1.37%	+6.31%	+5.00%
산업재	716.55	-0.88%	+6.79%	+5.01%
경기소비재	1,243.18	+1.50%	+0.50%	-2.05%
필수소비재	684.93	+0.86%	+3.65%	+0.66%
헬스케어	1,293.81	-0.17%	+1.26%	+3.18%
금융	448.89	-0.50%	+10.18%	+9.07%
IT	2,131.23	+2.41%	+3.11%	-0.69%
커뮤니케이션	211.46	+0.57%	+1.67%	+4.86%
유틸리티	337.58	+0.34%	+4.36%	+4.85%
부동산	229.36	+0.77%	+3.79%	+2.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2.4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대선 이후 외국인의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11/4~11 일까지 3 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완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는 한국을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발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가 유입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 되면 글로벌 경기 특히 무역 교역량의 증가를 기반으로 한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한국을 비롯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결국 외국인은 바이든 당선과 백신 개발을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교역량 증가를 이유로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을 비록해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그에 반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 된다고 해도 실제 접종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확산되는 코로나를 통제 하기 위해서는 일부 경제 봉쇄 등을 수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음을 보여주며 경기 회복 속도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및 경제 관련 내각, 연준 이사 임명, 코로나 통제, 재정 부양책 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어 외국인의 지속적인 대규모 순매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유동성 증가율 둔화

중국 10 월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5%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치(yoy +10.9%)는 물론 예상(yoy +10.9%)을 하회했다.

중국 10 월 신규 대출은 지난달 1 조 9 천억 위안이나 예상(7,500 억 위안)을 하회한 6,898 억 위안에 그쳤다. 대출 잔액 증가도 예상(yoy +13.0%)을 하회한 전년 대비 12.9%를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코로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장 후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한편, OPEC 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내년 수요 전망치를 전월 보다 하루 30 만 배럴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보다는 하루 625 만 배럴 증가한 9,626 만 배럴로 전망한 점에 주목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달러화는 코로나 급증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그에 따른 생산 등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에 실현성은 없지만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부양정책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백신/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상존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다. 더 나아가 내일 있을 파월 연준의장, 라가르드 ECB 총재, 베일리 BOE 총재의 연설을 기다리는 경향도 컸다. 한편, 오늘 라가르드 총재는 12 월 회의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지난 ECB 통화정책회의 당시에 이어 내놓았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코로나 재 확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영향으로 1% 가까이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팔라듐이 6% 넘게 급락했다. 중국 상품 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1.45	+0.22	+5.87
브렌트유	43.80	+0.44	+6.23
금	1,861.60	-0.79	-1.82
은	24.267	-0.80	+1.57
알루미늄	1,918.00	+0.52	+0.50
전기동	6,885.00	-0.68	+0.69
아연	2,624.00	-0.79	+1.18
옥수수	427.00	-0.93	+3.83
밀	606.00	-1.66	-0.57
대두	1,152.50	+0.57	+6.10
커피	111.95	+1.77	+5.96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2.992	+0.26	-0.44
EUR/USD	1.1782	-0.28	+0.48
USD/JPY	105.42	+0.11	+0.86
GBP/USD	1.3218	-0.41	+1.77
USD/CHF	0.9169	+0.16	+0.55
AUD/USD	0.7283	-0.01	+1.41
USD/CAD	1.3062	+0.22	-0.56
USD/BRL	5.4001	-0.22	-4.69
USD/CNH	6.6171	+0.27	-0.10
USD/KRW	1110.00	-0.46	-2.43
USD/KRW NDF1M	1112.44	-0.44	-1.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975	+1.58	+21.24
한국	1.670	+4.00	+10.50
일본	0.041	-0.40	+0.30
독일	-0.507	-2.20	+13.1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0.154	-3.00	+6.40
포르투갈	0.122	-2.40	+5.90
그리스	0.814	-2.10	-3.70
이탈리아	0.737	-2.40	+5.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